

개화기의 염료와 염색업에 관한 연구

김 순 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Dyes and Dyeing in Korea, from 1876 to 1910

Soon-Young Kim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0. 8. 9, 심사(수정)일: 2010. 10. 7, 게재 확정일: 2010. 10. 27)

ABSTRACT

It was the era, from 1876 to 1910, that some dramatic changes, including an influx of foreign dyes and the beginning of the modern dyeing manufacture, happened in Korea. This paper explores what dyes were sold in the market in this period, who was the main seller of the goods, and how the dyers produced their products. A wide range of natural dye stuffs coexisted with the various kinds of aniline dyes, alizarin dye and synthetic indigo in the market. Coloring materials had been sold by *hwapi-jeon*, a group of official merchants who acquired a privilege of monopoly from the government. However, the dyes were also traded by *sang-jeon* and *yakguk* merchants in the nineteenth century. Most of the synthetic dyes sold in Korea were produced in Germany or in Japan later, and imported in large amount by Chinese, Japanese and German merchants. Yet there also existed Korean merchants and peddlers who sold the goods to the local consumers. Dyers were male and female who belonged to the middle class. They received the orders and payments from the government or merchants. Not only did they dye textiles, threads, cotton, paper and leather, but they also redyed clothes. Indigo dyers were differentiated from other dyers. Modern dyeing manufacture, which was presumably forced to keep pace with the productivity of the weaving process, appeared in the 1900s. It was a branch of the modern weaving manufacture.

Key words: dyeing(염색), dyer(염색업자), dyes(염료), *Hwapi-jeon* merchant(화피전 상인)

I. 서론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로 조선의 항구가 개방된 1876년부터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1910년까지의 시기는 수세기간 쇄국정책을 고수해 왔던 조선사회에 서구문물이 유입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격동의 시기였다. 급속도로 밀려든 수많은 외산물품 중 하나에 합성염료가 포함되었으며, 새로운 설비를 갖춘 근대적 회사들 가운데 염직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그동안 천연염료를 사용하여 재래의 방식으로 염색을 해온 조선인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다.

염료 및 염색의 역사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개화기는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한 공백기이다. 상업사 분야에서 개화기의 상업 변동과 주요 상회사 및 시전에 관한 연구가 많이 행해져 왔지만, 염료 상품과 염색업에까지 그 관심이 미치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개화기의 염료와 염색업을 주제로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개항 이전부터 사용해온 재래의 염료상품과 개항 이후 새롭게 유입된 서양염료¹⁾의 종류를 파악한다. 둘째, 이들 염료의 유통 주체, 즉 염료 상인들이 누구였는지, 이들이 어떻게 영업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개화기 염색 수공업의 생산 활동과 근대적 염직회사의 출현 정황을 고찰한다. 이상의 연구문제들을 통해서 개화기 염료시장과 염료상인들, 염색업자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염료 발달사를 볼 때, 천연염료는 19세기 중반 무렵 합성염료의 개발과 이의 산업적 생산의 성공으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20세기 초에는 이미 합성염료의 향상된 견뢰도와 가격 경쟁력에 밀려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조선 재래의 천연염료들은 개화기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합성염료들에게 점차 그 자리를 내어 주게 되었다. 20세기 초에 설 자리를 잃었던 천연염료가 오늘날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은 동서양의 공통된 현상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조선의 전통이 살아 있었던 마지막 시기라 할 수 있는 개화기의 염료와 염

색의 역사를 복원하여 전통을 재창조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국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한말의 문헌자료를 위주로 분석한 문헌적 연구이다.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고종실록』 등의 편년 사서를 기본으로 하고, 『탁지준절²⁾』을 비롯하여 장서각 소장 발기류³⁾와 교토(京都)대학 소장 면주전(綿紬塵) 관계 고문서⁴⁾를 활용했다. 또한 『한성주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등 구한말의 신문자료를 참조했다.

II. 개화기 염료상품의 종류

1. 재래염료의 종류

『탁지준절』 입염물종에 의하면 19세기 후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재래의 염색관련 물종은 총 14 종이다. <표 1>⁵⁾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은 천연의 식물성 원료들이거나 사용에 편리하게 가공된 매염제 상품 및 셰소성분을 농축시키거나 우려낸 형태의 염료 상품들이었다.

천연 그대로의 원료로는 홍화, 지초, 괴화, 치자, 단목, 오미자, 황화목, 올금, 천초가 있었다. 다른 원료에 비해 무겁고 부피가 큰 황화목을 제외하고, 이들 원료는 기본적으로 중량 단위로 거래되었는데 '양(兩)', '근(斤)', '청(稱)'이 그 기본단위였다. 홍화, 단목, 천초는 조선의 대표적 홍색 염료이며, 지초는 자적색 염료, 괴화, 치자, 올금은 황색 염료들이다. 오미자는 홍화 염색, 황화목은 지초 및 괴화 염색을 위한 매염제였다.⁶⁾

가공된 상품으로는 각태회(角太灰), 백반, 황회수, 연지수가 있었는데, 전자의 둘은 매염제이며 후자의 둘은 염료 상품이다. 각태회는 콩이나 팥 등의 깍지를 태워서 얻은 재인데, 홍화염색 등 색물이 필요한 염색에서 재를 만드는 수고를 덜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많게는 '섬(石)', 적게는 '말(斗)' 단위로 거래되었다. 백반은 대표적으로 단목과 꼭두서니 염색시 밭색에 반드시 필요한 매염제였는데, 이 외에도 괴화, 촉규화(蜀葵花), 당리피(當梨皮), 형엽(荊葉), 상목

〈표 1〉『탁지준절』에 기록된 재래염료 상품 및 준절가

임염 물종	단위	단위환산	거래수단	준절가	담당관청 및 준달방식	용도	제조원료
홍화	근	1승 중(重) 1양1전1분	원미(元米) 양미(兩米) 하지목(下地木)	1석 1석1두 1필	용감(用監)	홍색 입염	
	양		전(錢)	1전2분5리			
	근		전(錢)	1양5전	판무(版貿)		
지초	근	1승 중(重) 4양4전	호미(湖米) 강미(江米) 무미(貿米)	10두 8두 5두	용감(用監)	자적입염소용	
	양		전(錢)	8분3리			
	3근	1승 중(重) 7양	하지목(下地木)	2필	용감(用監)		
괴화	근		전(錢)	1양3전3분	황색 입염		
	양		전(錢)	8분3리			
치자	근		무은(貿銀)	8전	외공(外貢) 제용(濟用)	황색 입염소용	
	양		전(錢)	1전			
	양		전(錢)	1전6분	용감(用監)		
단목	근	방(方) 4촌 중(重) 10근	은(銀)	5분	용감(用監) 판별(版別)	수복홍의 입염	
	양		전(錢)	6리2호			
	정		은(銀)	2양2전	판무(版貿)		
오미자	근	1승 중(重) 7양6전	원미(元米) 무미(貿米)	5두 4두	용감(用監)	홍입염소용	
	양		전(錢)	6분6리			
황회목	동	6단 작(作) 1동	원미(元米) 무미(貿米)	8두 3두	용감(用監)	황색 자적입염소용	
	단		전(錢)	1전3분3리			
삼보	다리 (月乃)	1속 중(重) 10근 6속 작(作) 1동	무미(貿米)	2두5승	용감(用監)	각양장식입염소용	
각태회	석	1석 = 15두	무미(貿米) 전(錢)	12두 2전1분3리	용감(用監)	홍화입염소용	
울금 (심황)	근		하지목	6필	용감(用監) 판전(版塵)	입염물종 채색	
백반	양		전(錢)	7전5분			
천초	근		원미(元米) 무미(貿米)	8두 5두	용감(用監) 판무(版貿)	명유(明油) 소입	
	양		전(錢)	8분3리			
	근		현목(玄木)	2필			
황회수	근	1두 중(重) 1근반	전(錢)	2전4분	판무(版貿)		괴화 1승5합 황회목 1단 소목(燒木) 반단
	양		전(錢)	1분5리			
연지수	복자 (卜子)		전(錢)	7전8분	용감(用監)		홍화 5양 오미자 2양3전7분

(桑木), 황로(黃蘆), 아랑오피(阿郎吾皮) 등 다양한 식물성 염재의 매염제로 많이 이용되었다.⁷⁾ 황회수는 괴화와 황회목을 우려내어 황염을 할 수 있게 염

액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병(瓶)' 단위로 거래되었다. 연지수는 홍화의 붉은 색소를 침전시킨 것인데 '복자(卜子)' 단위로 거래되었다.

이 밖에 재래염료로서 각종 장식과 염색에 사용된 ‘삼보(三甫)’라는 물종이 있다. 삼보가 무슨 염료인지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삼보의 거래 단위인 ‘다리(月乃)’가 머리카락, 실, 노끈 등의 유연 하면서도 가늘고 기다란 재질의 둥치를 세는 단위임을 감안해 볼 때, 근수로 거래가 된 다른 염색 원료들과는 성질이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상방정례』에도 삼보의 기록이 나온다. 즉, 유청토주, 초록토주, 초록사를 염색하는데 삼보와 황회목을 이용한다고 했다.⁸⁾ 삼보가 무엇인지 유추하기 위하여 『규합총서』에 기록된 유청, 팔유청, 초록의 염색법과 비교해보았다.

『규합총서』에 의하면,⁹⁾ 유청은 ‘붉게 누른 헝조식(술고벗)’으로 황백과 심황(율금)의 복합염으로 얻는 색이다. 팔유청은 남과 황백의 복합염을 통해서, 초록은 괴화(또는 삼비)와 남의 복합염을 통해서 얻는다. 이들 세 가지 색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염료가 황백, 율금, 괴화, 삼비와 같은 황염 재료들이다. 따라서 이 황염 재료들 가운데 하나가 ‘삼보’일 가능성성이 크다. 율금과 괴화는 『탁지준절』입염물종에 기록되어 있으니 제외된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황백과 삼비이다. 그런데 황백은 황백나무의 껍질이므로¹⁰⁾ 그 성질이 단목처럼 목질(木質)이며, 삼비는 조개풀로 억새와 비슷하게 생긴 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서¹¹⁾ 그 성질이 초질(草質)이다. 삼보의 거래단위가 ‘다리’임을 감안해 볼 때 삼보는 삼비의 차자표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초록을 염색할 때, 삼비를 쓰는 것이 괴화를 쓸 때보다 더 빛이 고왔다고 한다.¹²⁾

물론 <표 1>에 기록된 14종 물종이 19세기 후반의 시장에 유통된 재래염료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상기의 입염물종은 주로 궐내 소용 및 정부 부처에서 필요로 했던 염색 재료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탁지준절』의 입염물종을 19세기 초 민간의 사정을 전한 『규합총서』의 입염물종과 비교해 볼 때, 쪽(藍), 황백, 왜황련, 계장초, 먹, 뽕나무, 팔배나무, 황다, 고련근, 향유, 금전화 등의 염료가 추가적으로 발견된다.¹³⁾

쪽은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남염 원료인데 『탁지

준절』입염물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쪽은 다른 염료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대부분의 식물성 염료들이 수확 이후 특별한 처리공정이 없이 건조 상태로 유통될 수 있는 상품인데 반해, 쪽은 생잎을 수확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하거나, 만일 유통시키거나 오래 두려면 반드시 남전(藍靛)으로 만들어야 한다.¹⁴⁾ 따라서 남염 염료가 시장에 유통되었다면 바로 남전의 상태였을 것이다. 그런데 관청에서 이 남전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발효 공정 등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탁지준절』입염물종에 남전이 빠진 것은 남전 상품이 시장에 없었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관청에서 남전을 구매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IV장에서 후술하겠지만 당시 남염은 남염전문 염색업자에게 맡겨졌다.

황백, 왜황련, 팔배나무는 황색 염료들이며, 계장초는 그 꽃으로 아침빛과 유사한 색 혹은 벽색을 물들일 수 있다. 먹은 회색의 염료, 뽕나무는 타색(약대빛, 장색)과 침향색의 염료였으며, 황다, 고련근, 향유는 빼빛, 금전화는 주황색의 염료였다.¹⁵⁾ 이를 가운데 회색, 황갈색, 빼빛, 주황색 등은 모두 간색(間色)으로 조선에서 귀하게 여겨진 색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 색을 내는 염료들은 궐내 혹은 관청 소용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 역시 『탁지준절』의 입염물종에 준절가(準折價, 기준가격)를 굳이 명시해 두지 않아도 되는 물종인 것이다.

2. 서양염료의 종류

『탁지준절』과 장서각 소장 발기류 등 자료에서 ‘양(洋)’자가 들어간 색명을 찾아 개화기에 사용된 서양염료의 종류를 파악해 보면 양청(洋青), 양람(洋藍), 양전(洋靛), 양홍(洋紅), 양록(洋綠), 양초록(洋草綠), 양옥색(洋玉色) 양보라(洋甫羅), 양자적(洋紫的) 등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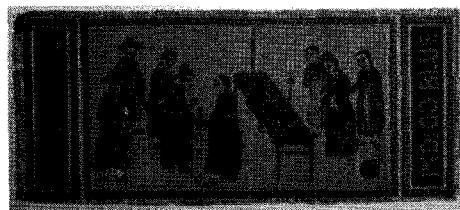
양청은 『국어대사전』¹⁶⁾에서 ‘당청보다 빛깔이 진한 물감의 하나’로 정의되어 있고, 일본어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¹⁷⁾과 『색명대사전(色名大辭典)』¹⁸⁾에서는 “짙은 감색(紺色)으로 독일국 베를린 산의 남이다. 베를린 블루, 프랑스의 블루, 프러시안 블루와

같다”고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1870년대 무렵 조선에서 양청은 채색용과 염색용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염색용 양청이 채색용 양청의 10배 가까운 고가였다.¹⁹⁾ 일본 사전의 정의를 참고해 볼 때, 개화기의 채색용 양청은 프러시안 블루 안료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채색용 양청이 군청(Ultramarine Blue)이나 코발트 블루(Cobalt Blue)라는 견해도 있다.²⁰⁾ 염색용 양청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가 없다. 장서각소장 『명유(1897)염료불가』에 양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염색용 양청일 것이다. 염색용 양청은 1갑에 26냥으로 진분홍, 연분홍, 취월, 보라 등 다른 염료에 비해 월등히 비싼 염료였다.²¹⁾ 19세기 말 조선의 사정을 보고한 또 다른 기록에서는 시장에 유통된 외국상품 중에 ‘통에 든 배틀린 청색 물감’과 ‘병에 든 아닐린 염료’가 있었다고 하는데,²²⁾ 통에 든 배틀린 청색물감이 아마도 양청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양청은 또한 양람이라고도 했다.²³⁾ 『국어 대사전』에서 양람은 ‘인디고’라고 되어 있고, 『색명대사전』에서는 ‘인도람과 인조람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도람은 인도에서 생산되어 주로 유럽 상인들에 의해서 유통된 천연 인디고 염료를 말하고, 인조람은 합성 인디고 염료를 말한다. 1886년 『한성주보』 세창양행의 광고에 양람색이 등장한다.²⁴⁾ 광고가 게재된 1886년은 유럽에서도 합성 인디고가 상품화되기 이전이었으므로,²⁵⁾ 이 양람색이 합성 인디고 염료였을 가능성은 없다. 세창양행이 독일계 마이어 상사의 지사였으며 19세기 후반 독일은 합성염료산업의 독보적인 선두국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이 양람색은 당시 독일에서 생산되고 있었던 청색계의 여러 합성 염료들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염료가 정확히 어떤 종류였는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메틸렌 블루(Methylene Blue)와 같은 순수한 청색 염료가 독일의 대표적 염료회사인 BASF(Badische Anilin und Soda Fabrik)사에 의해 1870년대 후반에 이미 생산되고 있었다.²⁶⁾

그러나 합성 인디고의 산업적 생산이 가능하게 된 1897년 이후 기록에서의 양람은 합성 인디고 염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준근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1>²⁷⁾은 19세기 말 세창양행이 조선에서 유통시킨 물감의 포장지인데 여기에 ‘인디고 블루(indigo blue)라는 이름이 써혀 있다. 합성 인디고 염료의 포장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세창양행의 인디고 블루 포장지.
<http://kisan.culturecontent.com>

양전(洋靛)은 한자의 의미로 볼 때 양청 혹은 양남보다는 더욱 분명하게 인디고 염료를 지칭하는 말이다. ‘전(靛)’이라는 한자어가 인디고 색소 침전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전(藍靛)은 천연의 침전람으로서 조선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대표적인 남 염료였다. 그러나 개화기에 유통된 남전 염료상품이 모두 조선산은 아니었다. 1883년 『조선국해관세목』의 수입부 염료와 안료 조항에는 건람(乾藍)과 수람(水藍)이 기록되어 있어.²⁸⁾ 일본으로부터 이들 남 염료가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83년은 합성 인디고가 상품화되기 이전이므로 건람은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천연 침전람을, 수람은 수분이 남아 있는 천연 침전람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1908년에서 1909년 사이의 대한제국관보에 남옥(藍玉), 남전(藍靛), 양전(洋靛)이 제2류 염료·안료·매염료 상품군에 포함되어 있다.²⁹⁾ 이 기록에서 남전은 천연 인디고 염료를, 양전은 합성 인디고 염료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남옥은 일본의 대표적 발효 건조 남 염료인 옥람(玉藍), 즉 스쿠모를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³⁰⁾ 한국병합 직전에는 천연 인디고와 합성 인디고 뿐 아니라 일본산 스쿠모까지 일본에 의해 조선으로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홍은 『국어대사전』에서 ‘연지벌레에서 짜내어 만든 붉은빛의 물감, 화구(畫具) 또는 찻색제로 쓰임, 카민, 카르맹’으로 정의되어 있다. 『색명대사전』에서는 “코치닐 벌레의 끓인 즙에 명반, 염화제1석(鹽化

第一錫) 또는 주석영(酒石英, 주석산칼륨)을 가하여 색소를 침전시켜서 만든 홍색의 안료이다. 선명하고 내구성이 좋다. 카민 레이크와 같다”고 되어 있다. 1931년 일본에서 편찬된 『색명총감(色名總鑑)』³¹⁾에서 “양홍색(Carmin Red)은 절은 홍색으로 카민 레이크 혹은 크림슨 레이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 문서에는 수입과세세율이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양홍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양홍(코치닐)’이고 다른 하나는 ‘양홍(카민)’이다.³²⁾ 코치닐의 관세가 20%, 카민의 관세가 10%, 염료, 유질염료(油質染料) 및 기타, 염료원료의 관세가 7.5%로 천연염료보다 합성염료의 세율이 더 낮았다.

한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9세기 말 조선인들의 외산품 의존도를 말하고 있는데, “특히 표백되지 않은 셔츠천과 한랭사, 모슬린, 아마포, 아이들 의복 용의 터키레드는 한국인의 기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³³⁾고 했다. 여기서 터키레드는 합성 알리자린 염료로 염색한 색이거나 그와 유사한 선명한 붉은색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합성 알리자린은 1868년 독일 BASF사의 Graebe&Liebermann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어 1869년 Caro가 이를 산업화에 성공시켰다.³⁴⁾ 그 후 188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는 이미 합성 알리자린으로 염색하는 것이 천연 꽈두서니 뿌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세 배 정도 더 저렴했다. 합성 알리자린의 견뢰도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였지만 19세기 말 무렵에는 시장에서 천연 꽈두서니를 완전히 능가했다.³⁵⁾ 종합해 볼 때, 개화기의 양홍은 카민 안료, 천연 코치닐, 합성 알리자린 등의 염료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양홍과 양청의 염색 견뢰도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듯, 비가 오면 양홍과 양청으로 만든 옷의 염색물이 빠져 그 모양이 기괴했다고 한다.³⁶⁾

양록은 『국어대사전』에서 ‘진채(眞彩)의 한 가지로 석록과 같은 진한 빛깔’로 정의한다. 『탁지준절』 채색에는 양청과 더불어 양록의 준절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양록의 가격은 채색용 양청과 동일하다.³⁷⁾ 양청이 염색용과 채색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 달리 양록은 그러한 구분이 없다. 따라서 『탁지준절』에 기록된 양록은 채색용 안료를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채색용 양록은 탄산소다의 수용액에 아비산을 첨가하여 제조한 무기 화합물의 일종이다.³⁸⁾

그런데 1886년 『한성주보』 세창양행의 광고에 녹염료(綠染料)가 등장한다.³⁹⁾ 장서각 소장 발기류에는 양초록 직물류가 상당수 등장하며,⁴⁰⁾ 간혹 양록 직물류도 등장한다.⁴¹⁾ 여기서 양초록과 양록은 동일한 색을 지칭하는 색명이었을 것이다. 이들 양초록(양록)이 곧 세창양행이 광고하고 있는 녹염료로 염색된 색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발기류에는 또한 양옥색 직물류도 등장하는데,⁴²⁾ 양초록과 양옥색이 정확히 어떤 염료로 염색된 색이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초록계열 합성염료 개발사정을 참조해보면, 1877년에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이라는 합성염료가 개발되었는데, 이 염료는 기존의 아이어딘 그린(Iodine Green), 메틸 그린(Methyl Green)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했으며 매우 아름다운 비취색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⁴³⁾

장서각 소장 발기류에는 또한 양보라(洋甫羅), 양자적(洋紫的)이 기록되어 있다.⁴⁴⁾ 『국어대사전』에서 양보라는 ‘서양에서 만든 보라, 또는 보랏빛 물감’으로, 양자주(洋紫朱)는 ‘서양에서 만든 자주빛 물감, 양자지(洋紫芝)’로 정의되어 있다. 자색계열의 합성 염료로는 1856년 W. H. Perkin이 개발한 모브(Mauve)를 비롯하여 1863년 A. W. Hofmann의 보라(violet) 등이 있었다.⁴⁵⁾ 한편, 『정유(1897) 염료불기』에서 양청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던 진분홍, 연분홍, 보라, 취월 등도 그 포장 단위가 양청과 마찬가지로 ‘갑’이었음을 볼 때 모두 합성염료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⁴⁶⁾ 이들이 세창양행이 『한성주보』에 광고한 ‘각색염료(各色染料)’에 포함된 염료들이었을 수도 있다.

III. 개화기의 염료상업

1. 조선상인의 상업 활동

1) 재래염료의 상업 주체

개화기 염료상업의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항 전후기 재래염료의 판매업자가 누구였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18~19세기에 화피전(樺皮

은 각양 채색 등의 물건을 파는, 1분역(分役)의 국역을 담당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유분전(有分塵)에 해당하는 시전이었다.⁴⁷⁾ 『탁지준절』채색 기록은 조선이 개항한 시기인 1870년대에도 여러 가지 채색 물종이 화폐전에서 판매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⁴⁸⁾

고종 1년(1864년)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화폐전에서 후추, 단목, 백반, 당청화(唐青花) 등의 물종을 두고 약국(藥局)과 분쟁을 벌인 정황을 알 수 있다. 즉, “저희 전(즉, 화폐전)의 물종 중에 후추, 단목, 백반, 당청화 4종은 약국인들이 약재라고 평계 하면서 정세(定稅)를 바치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도거리하고 있으니 속히 도가율(都價律)을 실시해 처벌해 주시고 전후로 미납한 세금은 일일이 추급해 주소서”⁴⁹⁾라고 하여 화폐전에서 단목과 백반 등의 염색 물종도 취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즉, 각종 안료와 염료 상품은 공식적으로 화폐전의 판매 물종이었던 것이다.

또한 상기의 기사에서 비록 염색 물종이 공식적으로 화폐전에 귀속된 물종이었으나 화폐전 이외의 다른 상인들도 이를 판매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국역 부담을 하지 않는 규모가 작은 무분전(無分塵)의 경우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분설시전들이 도성 안팎으로 적게는 2개 많게는 수십 개씩 들어서 있었다.⁵⁰⁾ 화폐전은 비록 1분의 국역을 부담하는 유분전이었지만 다른 유분전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⁵¹⁾ 정조 15년(1791년) 신해통공 이후 화폐전은 진사전(真絲塵), 면자전(棉子塵), 의전(衣塵), 혜전(鞋塵) 등 다른 소규모의 시전들과 합동하여 지속적으로 난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⁵²⁾ 특히 규모가 작은 무분전이었던 약국과의 분쟁이 있었는데,⁵³⁾ 그 분쟁이 고종대에도 지속된 것이다. 천연의 염료들은 대부분 약용으로도 이용 가능한 재료들이며 오늘날에도 상당수의 종류가 경동시장의 약재상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염료 상품은 또한 화폐전보다 분설시전이 많았던 상전(床塵)에서도 취급되었다. 상전은 잡화류 즉, 말총, 가죽, 촉물(燭物), 향사(鄕絲), 서책, 벗 등을 취급한 시전이었는데 무분전에서 3분전까지 그 규모가

다양했다.⁵⁴⁾ 고종 30년(1893년) 화폐전 시민들의 상소에서 “상전의 시민들이 본전의 각종 염물(染物)을 강제로 빼앗아 제멋대로 방매하고 있으니 종전대로 규례를 회복하여 일체 금지해 주소서”⁵⁵⁾라고 하여, 1890년대에는 화폐전의 염물을 잡화점인 상전에서도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⁵⁶⁾는 구한말 잡화점의 풍경이다. 위로는 옷가지가 걸려있고 점포 주인의 뒤로 크기가 작은 잡다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다.



<그림 2> 구한말의 잡화점 풍경,
서울상공업사, 2003, p. 406.

2) 서양염료의 판매

양청과 양홍 등의 서양염료는 개항 이전부터 조선에서 유통되고 있었다.⁵⁷⁾ 『탁지준절』채색에서 양록과 양청이 화폐전의 취급물종으로 기재된 점을 볼 때,⁵⁸⁾ 화폐전에서 재래 염료와 더불어 서양 염료도 판매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부터 정부는 외국산 물품의 유통을 자유 시장에 맡겨두는 정책을 펼쳤고 이는 시전상인보다는 중국 시장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던 상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한다.⁵⁹⁾ 따라서 화폐전 이외의 다른 상인들도 서양염료를 판매했을 것이다.

러시아 대장성이 1900년 발행한 조선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들 서양 염료가 도시의 소규모 잡화점에서 판매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선에서 발견되는 거의 모든 상점은 언제나 같은 종류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량도 대단히 적었다. 이들 상점에서 구매자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란 언제나처럼 토산 담배, 기다란 담뱃대, 마포

와 몇 가지 물건들, 즉 종이, 아닐린 염료, 바늘, 성냥, 단추, 여자용 머리핀, 작은 거울, 나무빗, 칼과 그 와 비슷한 것 등이다”⁶⁰⁾라고 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또한 지방의 정기 시장 즉, 장날의 실태를 전하며, “걸상에 놓여 있는 물건들은 다음과 같다. 주먹크기 만한 알사탕, 대량으로 판매되는 감미식품, 여러 가지 직물 즉, 영국 및 일본산 모직물, 마포, 대마포, 적색 면직물, 조선산 회귀견직물, 주로 정기시장에서 대량으로 팔리는 아닐린 염료, 그리고 사프탄, 인디고와 형광염료... 등이 진열되어 있다”⁶¹⁾고 했다.

19세기 말에 합성염료가 도시 뿐 아니라 지방의 장시에서도 대량으로 유통된 점을 볼 때, 당시 민중들의 생활에 합성염료가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 알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염분(染粉) 수입으로 인해 1906년 무렵에는 이미 홍화, 요람, 승람 등 재래의 염색 식물의 재배와 수요가 크게 감소된 상태였다.⁶²⁾ 비록 개항 이후 서양염료가 상당부분 외국상인에 의해 대량 수입되었으나, 이들 염료를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은 유통구조의 말단에 위치한 조선인 소매상 또는 행상들이었다. 소규모의 상인들 외에도 1900년 후반 무렵에는 제법 규모 있는 조선인 상점에서도 서양염료를 직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었다. 서울의 종로에서 상업과 제조업을 함께 했던 김덕창의 중곡염직공소(中谷染織工所)에서는 1909년과 1910년 무렵 모자, 양말, 남녀학생의복 등을 제조, 판매했는데, 이와 더불어 독일염분을 직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다.⁶³⁾

2. 서양염료의 수입과 외국상인의 출현

조선은 1882년 미국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서양과 직접적인 무역을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도 중국과 일본상인의 중개로 간접교역을 하고 있었다.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1876년 이후, 유럽산 상품은 상당수가 일본 상인들에 의해 중국 상하이(上海)로부터 일본 고오베(神戶)를 경유하여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일본산보다 오히려 유럽산 상품이 더 많았다고 한다.⁶⁴⁾ 개항초기에는 비교적 영세했던 일본인 상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원이 늘고 영업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1888년, 1896년, 1907년 서울에

거주한 일본인의 직업 가운데, 염료를 취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직업인 무역상과 잡화상의 수를 보면, 1888년에 무역상 5명, 잡화상 15명, 1896년에 무역상 4명, 잡화상 79명, 러일전쟁 이후인 1907년에는 무역상 34명, 잡화상 189명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⁶⁵⁾

러시아 대장성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⁶⁶⁾ 1877년부터 1882년까지 일본이 조선으로 수입한 유럽산 상품의 종류별 수입가액을 비교해 볼 때, 염료는 셔츠·와이셔츠지, 마포 다음으로 가액이 높은 180,889 앤으로 기록되어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884년부터 1888년까지의 인천항 수입 품목에서도 염료는 금건(金巾), 한랭사(寒冷紗), 견포(絹布) 등 다음으로 4~6위에 기록되었는데,⁶⁷⁾ 이는 개항 이후 서양염료의 수입량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케 한다. 1906년에는 그동안 독일산 염료를 수입해서 판매해온 일본 회사인 교토양립합자회사(京都洋藍合資會社)가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들이 판매한 독일산 염료는 그 색이 신선하고 영구히 변하지 않는 좋은 품질이었다고 한다.⁶⁸⁾

유럽산 상품은 또한 중국인 상인들에 의해서도 수입되었다. 1882년 조청수록무역장정 이후에 중국 상인들이 조선에 체류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들은 서울의 중심부에 점포를 차리고 구미상품을 일본 상인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⁶⁹⁾ 1910년의 조선총독부 관보에 의하면, 청진항의 통과 무역 상황보고에서 “사탕, 정당(精糖) 및 염료는 약 9할이 일본인 취급이며, 상하이를 경유하는 염료는 청국인에 의하여 거래된다”고 기록되어 있다.⁷⁰⁾ 이로써 1910년 무렵에는 이미 일본인 상인이 거의 염료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중국을 경유하는 일부 염료는 여전히 중국인 상인에 의해 수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염료의 수입과 판매에는 또한 독일 상인도 일부 역할을 했다. 1882년 조선이 독일과 수교한 이후, 1884년부터 조선에서 활동해온 독일계 상사인 세창양행이 1886년 2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성주보』에 게재한 광고에는 염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덕상(德商) 세창양행이 이번에 조선에 개업하여 외국의 각종 자명종표(自鳴鐘表), 양경(洋

景), 팔음금(八音琴), 호박(琥珀), 파리(玻璃), 각양 양등(洋燈), 양뉴구(洋紐扣), 각색양우사단(洋羽絲綢), 양표(洋標), 포필(布疋)에 염의(染衣), 선명한 안료(顏料), 양침(洋針), 양선(洋線), 자래화(自來火) 등 각종 물건을 들여와 물품의 구색을 맞추어 공정한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 모든 귀객(貴客)과 사상(士商)이 찾아오신다면 염가로 팔 것입니다... 신도각화(新到各貨)-양표포(洋標布), 각색염료, 양답련(洋褡襪), 녹염료, 표양포(漂洋布), 각종 양구(洋扣), 표답련(漂褡襪), 호박, 정후양포(頂厚洋布), 양요대(洋腰帶), 양람색, 종표(種表), 본색이세포(本色二細布)..."라 하여 1886년에 신상품으로 각색염료, 녹염료, 양람색이 들어왔음을 알리고 있다.⁷¹⁾ 당시 염료 제조공업에 있어서 독일은 서구국가에서도 단연 선두였으며 조선에서 활동한 세창양행이 독일계 회사였음을 감안해 볼 때 세창양행이 광고하고 있는 염료는 모두 독일산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 상인이 직접 독일산 염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합성염료 제조공업의 선두는 독일이었지만, 19세기 말부터는 일본에서도 합성염료를 제조했다. 1900년의 러시아 대장성의 보고서에서 “웃감을 염색하는 염료는 조선산이든 외국산이든간에 조선에 있어서는 대규모로 사용되었다. 이 때문에 주로 아닐린 염료의 수입은 상당한 양에 달하였다. 이들 염료의 공급자는 주로 독일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일본도 이의 경쟁자로 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일본 산 염료도 영국총영사의 말에 따르면 베를린산에 비해 그 품질이 못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⁷²⁾라고 하여 19세기 말에 일본이 합성염료의 수출국이 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로써 개화기에 조선에서 사용된 서양염료는 대부분 초기에는 독일산, 1890년대 말 이후에는 독일산과 일본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한국병합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다. 1915년 영국의 Foreign Office and The Board of Trade가 발행한 1914년 한국무역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공급의 중단으로, 아닐린과 알리자린 염료들이 17,067 £에서 6,649 £로 줄었는데,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5,400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4,976 £ 감소했다”고

한다.⁷³⁾ 그러나 독일산이든 일본산이든 이들 염료는 상당 부분 일본인 상인의 무역에 의해 조선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IV. 개화기의 염색업

1. 염색수공업자의 생산 활동

1) 성별과 신분

조선 후기에 염색은 직조 및 침선과 마찬가지로 소규모인 경우 자급자족 및 농가부업의 형태로 각 가정 내에서 부녀자들에 의해 주로 행해졌다. 그러나 필 단위 등의 대규모 염색은 사정이 달랐던 것 같다. <그림 3>⁷⁴⁾과 <그림 4>는 구한말의 풍속화가 김준근에 의해 그려진 그림인데, ‘염색장’이라는 제목이 있어 당시 염색을 전업으로 하는 남자 수공업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두 그림에서 기다란 천을 겹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넣고 있는 남자 장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구한말의 풍속 사진 <그림 5>에서도 김준근의 그림과 유사하게 염색한 천을 넣어서 견조시키고 있는 듯한 남자 장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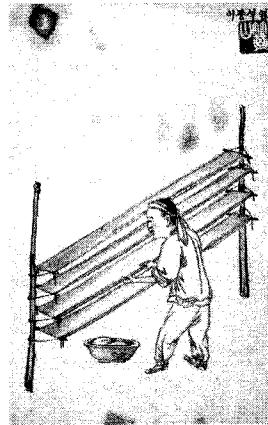
또한 김준근의 풍속화 중에는 <그림 6>과 같이 ‘청물 들이는 모양’이라는 제목의 그림도 있다. 이 그림에서 한 여인은 고무래질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여인은 쪽 염색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염색장’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지 않아 전업적 수공업자인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두 명이 나란히 서로 다른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때 꽤 전문적으로 남염을 한 일군의 부녀자들로 추정된다.

그런데 19세기에 여성들이 염색 수공업에 종사한 정황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탁지준절』입염마련에 의하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관수품의 염색에 고용된 염색 수공업자를 염모(染母)라 지칭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들 집단이 여성으로 구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염모들은 진현자적주, 자적주, 자적토주, 홍초, 홍주, 표리홍면포, 진현홍저포, 진현황저포, 황초, 황세목 등 주로 자적색, 홍색, 황색을 염색하여 소정의 노임을 받고 정부에 납입했다.⁷⁵⁾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대한제국에 체류한 프랑스



〈그림 3〉 염색장, 오스트리아 비엔나 민족학 박물관 소장,
<http://kisan.culturecontent.com>



〈그림 4〉 염색장, 오스트리아 비엔나 민족학 박물관 소장,
<http://kisan.culturecontent.com>



〈그림 5〉 구한말의 염색 풍경,
서울상공업사, 2003, p. 325.



〈그림 6〉 청물 들이는 모양, 프랑스 기메 박물관 소장,
<http://kisan.culturecontent.com>

인 에밀 부르다레의 글에 의하면, 1900년대 초반까지도 중인층의 여인들이 염색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그는 “조선사회에서 여자의 임무는 이것만이 아니다. 정말 많은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여자는 자기 일을 함으로써 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와야 한다. 이는 민중이나 대부인이나 마찬가지다... 직조, 재봉, 자수는 상류층 여인의 일감이다... 중인의 활동반경은 훨씬 넓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소규모 수공업이 허용된다. 바느질이나 염색, 빗, 머리띠, 담배쌈지 등을 만드는 것이다”⁷⁶⁾라고 하며 당시 염색이 주로 중인계급의 여인들의 업이었음을 알려준다.

2) 전문적 남염장의 존재

남염은 다른 초염(草染)과는 염색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보다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순조년간의 문헌인 『한경지략(漢京識略)』에 의하면 “또한 염전국(染靛局)이 여러 곳에 있는데 문 밖의 벽에 전화(靛花)로 손바닥을 찍어 표시했다”⁷⁷⁾고 하여 19세기 전반 서울에 전문적인 남염 수공업자가 여럿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1895년 상의사(常衣司) 소속의 염람장(染藍匠) 조봉완이 내장원(內臟院)에 제출한 소장에서도 19세기 말까지 궁내 소용 남염을 위한 관영 남염업자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소장 내용은 자신이 훈련

원 대청(大廳)의 뒷밭을 쪽풀(藍草)의 경작지로 다년간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희정이라는 사람이 농포(農圃) 소관으로 청하고 자기 이름을 내장원에 올렸다 하며 그 밭을 강제로 빼앗아 경작을 못하게 됨으로써 이를 조사하여 밭을 돌려달라는 것이다.⁷⁸⁾ 이 기록에서 상의사 소속의 장인이 19세기 말까지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는 관영 수공업 체제에서 벗어나 민영 수공업이 활성화 된 시기이며, 19세기에 존속했던 일부 관영 수공업도 실질적으로는 민영화되어 있어 사사로운 제조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한다.⁷⁹⁾ 따라서 상의사 소속의 남염장도 사적으로 남염업을 함께 했을 가능성이 크다.

3) 취급품목과 거래처 및 입염가

염색업자들은 주로 정부나 상인으로부터 각색의 직물을 주문받아 이를 소정의 염색가를 받고 염색했는데, 직물 외에도 실과 솜, 종이와 가죽 등의 염색도 행하고 있었다.⁸⁰⁾

정부는 염색할 일이 있거나 염색물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조달했는데 이를 주로 담당한 관청이 제용감이었다. 제용감은 조선 초부터 진현하는 포물(布物)과 인삼, 하사하는 의복 및 사라능단(紗羅綾段), 포화(布貨), 채색입염, 직조 등에 관한 일을 관掌한 관청으로,⁸¹⁾ 1894년에 상의원에 포함되면서 그 이름이 사라졌다.⁸²⁾ 이후 1904년에 제용사(濟用司)로 명칭을 바꾸어 궁내부 관제로 증설되었으나 얼마 못가 1905년에 영구히 폐지되었다. 정부 소용 각종 입염물종들은 원공(元貢) 혹은 별무(別貿)에 의해 조달되어 제용감으로 전달되었고,⁸³⁾ 제용감에서는 염모(染母)를 고용하여 염색을 하게 했다.⁸⁴⁾ 제용감에서 염색에 필요한 소소한 도구(예컨대 홍화즙을 취하는 주머니)까지 구비해 준 것으로 보건대,⁸⁵⁾ 염색은 염모의 개인적 작업장이 아닌 관영 작업장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제용감 소속의 염색 작업장이 1870년대에도 운영되고 있었으며 염모들은 필요시에 이곳에 불려와 염색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염모들은 염색의 노임으로 정부로부터 수공포(手工布) 또는 조역포(助役布)를 받았다. 매 필당 염색

노임을 보면, 노임이 높았던 자적토주(수공포 5척, 조역포 2척5촌)를 제외하고, 다른 염색물들(진현자적주, 자적주, 흥초, 흥주, 흥목면, 흥세목, 표리홍면포, 진현홍저포, 흥저포, 진현황저포, 황저포, 진현황면주, 황초, 흥세목)은 수공포 3척5촌 조역포 1척7촌5분으로 일정했다. 또한 염색 물량이 10필보다 많은 경우에는 염색의 난이도에 따라 10필 단위로 일정의 노임을 감하여 받았다. 예컨대 진현자적주와 자적주, 자적토주, 다흥수주, 다흥토주 등의 경우, 10필 염색마다 1필의 염가(染價)를 감했으며, 진현황저포의 경우에는 10필 염색마다 2필의 염가를 감했다.⁸⁶⁾

정부에서 필요로 한 염색물들은 또한 염계(染契)의 공인(貢人)들이나 해당 시전(市塵)으로부터 조달 되기도 했다. 염계 공인들에게 입염가(入染價)가 바로 지불된 것으로 볼 때,⁸⁷⁾ 이들은 곧 수공업자적 성격의 공인들로 판단되는데, 소정의 공가를 받고 염지(染紙), 염직물 등을 장흥고, 제용감 등 해당 부서에 진배했다.⁸⁸⁾ 염모(染母) 혹은 염계(染契) 공인들이 전체 염색업자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규모를 차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염색물에 대한 정부 물량의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염색업자가 염모, 혹은 염계 공인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⁸⁹⁾에 정리된 바와 같이 『탁지준절』의 필단 능초견, 주저목포면, 각색사견에서는 백색 입염차(入染次)의 준절가와 각 색의 입염가가 기록되어 있고, 그 하단에 염색물의 준절가가 다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염색업자들에게 백색의 원단을 대어주고 직접 염색을 의뢰하기도 하고 시전으로부터 염색 물 완성품을 구매하기도 했음을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다흥색의 입염가가 가장 높고, 다음은 자적색, 아청색, 초록색, 남색 순이었다. 흑색, 옥색, 황색의 입염가는 가장 낮았다. 입염가의 순위는 일차적으로 염료의 가격에 비례하고 있다.

정부 이외에 염색업자들의 다른 주요 거래처는 상인 집단이었다. 교토(京都)대학 소장 면주전 회계 문서에는 면주전에서 정부에 진배한 각색 토주와 수주의 수가(受價)에 입염가가 포함되어 있다.⁹⁰⁾ 이 기록은 1881년에서 1894년 사이에 면주전 상인들이 염색업자에게 맡겨 완성한 색면주를 정부에 진배했음을

<표 2>『탁지준절』에 기록된 염색물의 준절가와 입염가

색상	소재	단위	차를 수단	염색물 준절가	차봉 수단	입염가 (원단기 별도 재료가 포함)	색상	소재	단위	차를 수단	염색물 준절가	차봉 수단	입염가 (원단기 별도 재료가 포함)	
백	방사주	필	하지목	7필			홍	세목	필	전 (錢)	14양8전9분 10양7전9분	전	7양8전9분 3양7전9분	
목홍	방사주		전 (錢)	16양6전9분	전	2양6전9분	(아청 남 입염차)	목	필	전	3양5전			
백	토주	필	지목 (地木)	10필			아청 남	세목	필	전	4양6전7분 4양3전	미(米)	4두4승 3두	
대홍 자적 초록 아청 황 흑	토주	필	전	44양8전6분 30양1전8분 23양1전4분 25양8전5분 22양7전 22양7전	전 전 전 현목 전 현목 전	23양8전6분 9양1전8분 2양1전4분 2필20척 1필 1양7전	(입염차)	생목	지목	1필10척				
(진현) 백	면주	필	하지목	8필			아청 홍 초록 남	목	필	전	3양8전7분 3양7전1분 3양5전5분 3양5전	미	4두4승 3두8승 3두2승 3두	
자적 황	면주		전	23양1전3분 17양7전6분	전	7양1전3분 1양7전6분	청/자 황/흑				3양3전9분 3양2분		2두6승 1두2승	
백	수주	필	하지목	7필			(표리) 백	면포	지목	5필				
다홍 진초록 진남 진옥색	수주	필	전	30양3전8분 15양5전 15양2전 14양3전	전	16양3전8분 1양5전 1양2전 3전	대홍 압두록	필	전	26양7전4분 11양3전5분	전 미	16양2전4분 3두2승		
백	주	필	하지목	4필			백	포	전	2양2전				
대홍 자적 목홍 남/흑/육 색 녹 황	주	필	전	15양8전9분 14양4전1분 9양4분 8양5전8분 8양7전2분 8양4전2분	전 전 미(米) 미 미 미	7양8전9분 6양4전1분 3두9승 2두2승 2두7승5합 1두6승	아청 홍 청/자 황 흑	포	필	전	3양5전7분 3양4전1분 3양9분 2양7전2분 2양6전6분	미	4두4승 3두8승 2두6승 1두2승 1두	
(7승) 백	저포	필	하지목	3필			상(常)	면자	현목	4필				
아청 홍 청 후/황	저포	필	전	7양1전7분 7양1분 6양6전9분 6양2전7분	미	4두4승 3두8승 2두6승 1두	홍 황	면자	근	전	7양8전2분 7양1분	미	3두8승4합 8승	
(진현) 백	저포	필	하지목	8필			백	진사	은	5양8전				
홍 황	저포	필	전	27양3전3분 17양7전6분	전	11양3전3분 1양7전6분	아청 목 세목	진사	근	은	7양5전 5양8전	전	4양8전 8전	
(9승) 백	목 세목	필	하지목	3필반 4필			백	향사 저사 마사 면사	근	무미 무미 무미 전	1석9두 8두 4두8승 1양8전4분			
							각색	향사 저사 마사 면사	근	전	7양4전2분 3양1전5분 2양3전 2양8전6분	미	3두8승4합	
이행령체는 입염차(入染次)임.							아청	면사	근	전	3양3전4분	미	5두6승4합	

보여준다. 18~19세기에는 입전, 면포전, 면주전 등 대시전의 경우, 상업자본이 원료 매점, 상품 매점, 장인 고용 등을 통하여 소상품 생산자나 수공업자를 예속시키고 생산을 지배하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⁹¹⁾ 19세기 후반에 비록 면주전을 비롯한 많은 시전들이 예전에 비해 그 세를 급속히 잃어가고 있었으나,⁹²⁾ 이들 상인과 염색업자들의 거래 관계는 지

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면주전 회계문서에 기록된 입염가는 <표 3>⁹³⁾과 같다. 대홍과 자적은 다른 색과는 달리 원료의 필요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면주전에서 입염재료를 염색업자에게 모두 대어 주고 노임만을 지불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록, 남, 흑, 아청, 황 등의 색은 모두 재료가 포함한 입염가가 기록되어

〈표 3〉 면주전에서 진배(進排)한 각색 주(紬)의 입염가

색상	소재	단위	지불수단	입염가 (원단가 별도, 재료비 포함)	입염가 (노임)	원료	필요량	비고
대홍	토주	필				홍화 오미자	9근 8근	매근 대(代) 하지목 1필 매근 대(代) 미 4두
	수주	필				홍화 오미자	6근3양4전 5근6양8전	매근 대(代) 하지목 1필 매근 대(代) 미 4두
자적	토주	필	조역포		7척5촌	지초 황회목	6근6양8전 6단	
	수주	필				지초 황회목 소목(燒木)	4근8양 4단 1단반	
초록	토주	필	전(錢)	2양1전4분				
	수주	필	전	1양5전				
남	토주	필	전	1양7전				
	수주	필	전	1양2전				
흑/아청	토주	필	현목	2필30척				
	수주	필	현목	1필				
황	토주	필	현목	1필				
	수주	필	현목	25척				

있는데 이들 염색에서 염료의 조달은 염색업자의 몫이었던 것이다.

〈표 2〉와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토주염색의 단가가 수주염색보다 높았으며, 입염가의 지불수단은 전(錢), 미(米), 현목(玄木), 조역포(助役布)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입염가는 초록토주, 남수주, 아청토주, 황토주 등에서 보듯이 입염가에 재료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정부가 지불한 금액과 시전이 지불한 금액이 거의 유사했다. 그러나 자적토주의 예에서 보듯이 주문자가 재료를 대어주고 염색업자에게 노임만을 지불할 경우에는 차이가 있었다. 면주전은 조역포 7척5촌을, 정부는 조역포 2척5촌을 지불했다. 조선 후기에 시전민이 정부에 물건을 납부하고 받는 가격이 겨우 시가의 1~2할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⁹⁴⁾ 염색업자의 노임에서도 정부가격이 시가보다 낮았던 것이다.

면주전 회계문서에서 염가(染價)의 할인율을 보면, 대홍수주, 자적토주, 남수주, 초록토주의 경우 10필마다 1필씩의 염가를 감했다.⁹⁵⁾ 상기의 『탁지준절』의 할인율과 함께 종합해 볼 때 대홍(다홍)색, 자적색, 남색, 초록색 염색은 매 10필당 1필씩, 황색 염색은

매 10필당 2필씩의 염가를 할인했던 것이다.

염색업자는 직물이나 종이, 가죽 등 소재의 염색 뿐 아니라 기성 의복의 개염(改染)도 맡았다. 『탁지준절』에는 의장군(儀仗軍)의 복식을 다시 염색해 주는 경우의 준절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표 4〉⁹⁶⁾와 같다. 관대(冠帶)의 경우, 비록 세탁을 함께 해주는 조건이긴 하지만 다른 복식 품목(의, 상, 행전, 두건, 대)에 비해 개염가가 높은 편이었으며, 홍색과 청색 관대의 개염이 흑색과 초록색 관대의 개염보다 단가가 높았다. 의의 경우에는, 홍색, 조색(皂色)이 청색, 남색, 황색보다 개염 단가가 높았다. 대의 경우에는, 홍색이 청색, 황색, 흑색보다 단가가 높았다. 비록 두건과 같이 크기가 작은 복식 품목의 경우에는 홍색과 청색의 개염 단가에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홍색 개염의 준절가가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다. 개염가는 소재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의의 경우, 홍목의(紅木衣)와 홍주의(紅紬衣)의 개염가가 같고, 청목의(青木衣)와 남주의(藍紬衣)의 단가가 동일하다.

이상에서 염색업자들이 재래의 염료를 사용하여 어떻게 수공업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표 4〉 의장군(儀仗軍) 복식의 개염(改染) 준절가

색상	소재	복식종류	단위	기준수단	준절가	비고
홍/청 흑/초록	주	관대(冠帶)	건	미(米)	9승6합 7승2합	답련병(踏鍊并)
홍	목				8승4합	
홍/조(皂)	주					
청/황	목	의(衣)	건	미	7승2합	
남	주					
황	저포					
홍	주	상(裳)	건	미	3합6석	
청	목	행진(行纏)	건	미	3합6석	
홍/청	목	두건(頭巾)	건	미	3합3석	
홍	목	대(帶)	건	미	3합3석	
청/황/흑					1합	

서양염료로 물들이는 일까지 맡았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명유(1897) 염료불고』에 기재된 염료들이 대부분 합성염료였음을 가정할 때, 이들 염료를 사용해서 상의사(尙衣司) 소속의 장인이든 민간의 염색 수공업자이든 누군가는 염색을 했을 것이다. 비록 합성염료가 재래의 염료에 비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재래염료와 마찬가지로 필 단위의 대량 염색에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크다.

2. 근대적 염색업의 태동

개화기의 근대적 공업은 근대적 기기의 도입과 그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근대적 공업은 1883년 설립된 직조국 등을 비롯하여 초기에는 정부주도의 관영 회사로부터 비롯되는데 이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⁹⁷⁾ 민간인에 의한 근대적 공업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대두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직포업, 담배제조업, 정미업 등이었다.⁹⁸⁾ 직포업은 곧 면직물 제조업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직물 제조업이 근대적 공업의 선두에 서 있었던 것은 이에 수반되는 염색업도 직물 제조업과 함께 서서히 근대화의 길을 걸었음을 가정하게 한다.

서울 소재의 경우, 초창기의 근대적 직조업체로서 염색을 병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는 1900년 7월 4일자 『황성신문』에 기재된 남죽동조직소(南竹洞組織所)이다. 이 업체는 금릉목포(錦綾木布)의 직조

와 각종 표백과 염색을 전문 업종으로 했는데, 14세~20세의 남녀 견습생을 모집하여 이들에게는 점심을 제공하고, 재학생에게는 생산직물의 척수에 따라 노임을 지급하며 실업교육과 생산업무를 동시에 실시했다.⁹⁹⁾

직조회사 가운데 ‘염직(染織)’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회사도 염색업을 병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가운데 서서사동염직회사(西署社洞染織會社)와 중곡염직공소(中谷染織工所) 등이 1900년대에 염색업을 했다. 서서사동염직회사는 설립연도가 명확치 않으나 1906년에는 사무를 넓혀 포백(泡白) 등의 영업까지 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당시 외국의 대상들로부터 각색 주단(紬緞)과 면포(綿布)의 염색을 주문 받아 점차 홍하게 되어 서울 각처에 지점까지 설치하고자 했다.¹⁰⁰⁾ 중곡염직공소는 앞서 Ⅲ장에서 언급했듯이 1909년에 모자, 양말, 남녀학생의 치, 염분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와 더불어 주단(綢緞), 목포(木布), 모직(毛織) 등의 염색업도 당시에 병행하고 있었다.¹⁰¹⁾ 중곡염직공소의 주인인 김덕창은 1902년 2월, 22세의 나이에 일본에서 수입한 빤탄식 직기인 족답기 3대로 종로 장사동에 소규모의 직포공장을 설립했으며, 1910년에는 17대의 직기를 보유하고 직공수가 40명에 달하는 공장주로 성장했다.¹⁰²⁾

1910년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염직회사가 설립되기도 했다. 유길준 외 실업가 5인이 발기하여 서울에 자본금 1만원의 염직회사를 설립하는데, 발기인 각 일인당 1천원씩 지원(支撥)하고 2500주를 정하여 매

주에 2원50전씩 수합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있다.¹⁰³⁾ 지방에서도 염직회사의 설립이 시도되었는데, 1909년 3월에는 의주의 실업가들이 염직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주금(株金)을 모집하며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¹⁰⁴⁾

외국인에 의한 염색업의 운영도 확인된다. 1896년 서울에 거주한 일본인 가운데 2명이 염색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07년에는 9명이 종사하고 있었다.¹⁰⁵⁾ 1906년에 일본인 사사모도(笹本)는 자본금 10,000원으로 '일한염물'이라는 염색업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¹⁰⁶⁾

1900년 이후의 근대적 염직 회사들은 대부분 직물의 제조 및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했다. 즉, 직물 가공의 일환으로서 염색업을 운영했다. 그런데 족답기와 같은 근대적 적기설비를 갖추었던 이들 회사에서 염색업이 무슨 설비를 갖추고 어떻게 운영되었을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근대적 직기를 이용한 직물 생산의 경우처럼, 합성염료의 염색에 관한 실기교육 등과 함께 일정 설비를 갖추고 생산 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 일본이 19세기 말에 이미 합성 염료의 수출국이었음을 고려하면 일본인 소유 염색업체의 경우 더욱 그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9세기 조선의 상인자본의 수공업 지배 관행을 감안해 볼 때, 소규모의 염직회사들은 회사 내에 새로운 염색 설비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염색 수공업자들과 연계하여 이들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 염직회사에서 염색가공에 사용한 원료는 전적으로 수입품에 의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근대적 염료공업회사의 설립은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 이후인 1910년대가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1917년 경성부에 설립된 덕국안료창염료공장(德國顏料廠染料工場), 1919년 신의주에 설립된 선만염료공업(鮮滿染料工業) 등이 초창기의 염료제조 및 판매회사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모두 일본인 소유였다.¹⁰⁷⁾

V. 결론

본 연구는 개화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당시 시장에 유통된 염료상품의 종류, 염료상인과 그들의

상업 활동, 염색 수공업자의 생산 활동과 근대적 염색업의 정황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화기의 염료 시장에는 재래염료 상품과 서양염료 상품이 혼재되어 있었다. 재래염료 상품은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은 천연의 식물성 원료들(홍화, 지초, 괴화, 치자, 단목, 오미자, 황희목, 울금, 천초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용에 편리하게 가공된 매염제 상품(각태회, 백반 등)이나 황희수, 연지수 등과 같이 색소성분을 우려내거나 농축시킨 형태의 상품도 있었다. 서양염료 상품으로는 양청, 양람(양람색), 양전(洋靛), 양홍, 양록(양초록, 녹염료), 양옥색, 양보라, 양자적, 진분홍, 연분홍, 취월 등이 발견된다.

둘째, 개화기의 염료상업은 조선 상인과 외국 상인의 활동으로 대별된다. 조선후기 채색 및 염색 물종의 판매권은 1분역의 국역을 담당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전인 화피전(樺皮塵)에 귀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해통공 이후 19세기에 화피전은 잡화류를 파는 시전인 상전(床塵)이나 약국(藥局) 상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업권을 침해받고 있었으며 그러한 양상이 개화기에도 지속되었다. 개화기에 유통된 서양염료는 대부분 독일산과 일본산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일본, 중국, 독일 등 외국 상인들에 의해 대량 수입되어 판매되었다. 그러나 이들 염료를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조선인 소매상 또는 행상들도 존재했으며, 1900년 후반 무렵에는 제법 규모 있는 조선인 상점에서도 서양염료를 직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었다.

셋째, 개화기는 재래식 염색 수공업자와 근대적 염색업자가 공존한 시기였다. 염색 수공업자는 중인 계층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남녀로서 필 단위의 대규모 염색을 맡았다. 남염은 다른 초염과는 달리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했으므로 남염장에 의해 별도로 행해졌다. 염색업자들의 염색 품목은 주로 직물이었으나 이 외에도 실과 솜, 종이와 가죽 등의 염색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성 의복의 개염도 맡았다. 염색업자들의 주요 거래처는 정부 관청이나 면주전 등 염색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이었으며, 소정의 염색

가를 받고 염색을 했다. 필요한 재료를 정부나 상인으로부터 공급 받으면서 노임을 받기도 했고, 재료비가 포함된 입염가(入染價)를 받기도 했다. 입염가의 지불수단은 전(錢), 미(米), 현목(玄木), 조역포(助役布) 등이었으며, 10필 이상 대량 염색시에는 매 10필마다 1~2필의 염가를 할인해 주기도 했다. 근대적 염색업은 개화기 근대적 공업의 선두에 있었던 직포업의 일부 공정에 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00년대에 남죽동조직소(南竹洞組織所), 서서사동염직회사(西署社洞染織會社), 중곡염직공소(中谷染織工所) 등이 근대적 직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염색업을 병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들이다.

이상에서 개화기의 염료상품과 염료상업, 염색업에 관한 대강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본 연구는 수집자료의 한계로 인해 조선상인의 상업 활동을 시전인 화폐전 위주로 살펴본 한계를 갖는다. 19세기 활발했던 사상의 상업 활동을 감안해 볼 때 사상들도 염료상업에 관여 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여기까지 다루지는 못했다. 또한 염료의 시장상황을 실제 사용자들의 입장, 즉 염료의 소비 문제 및 복색 선호도 등과 연결시켜 다루지는 못했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직물제조업과 유통, 의류 상공업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근대 복식 산업사 이해를 위한 일부분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염색과 직물, 의류와 장신구 등의 제조 및 유통에 관한 개별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 복식 산업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총체적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참고문헌

- 1)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서양염료는 대부분 합성염료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개화기에 인도산 천연 인디고가 洋藍으로 불리기도 했으므로 개화기의 서양염료가 반드시 합성염료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용어인 洋染料, 즉 서양염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 2) 『度支準折』에는 각종 염색원료와 염료상품의 물종 및 염색가가 기록되어 있어 19세기 조선의 시장에 유통된 염료의 종류와 염색업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 총 5종 9책이 발견되었는데, 최초본은 1800년대 후반에 마지막본은 1870년대 후반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현창 (2007). 탁지준절 제본의 해제와 경계정보, 고문서연구, 31, pp. 193-194.) 본 연구에 사용된 것은 1870년대 후반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 가람古 336.2-T126t이다.
- 3) 장서각 소장 발기류에는 서양염료로 염색한 색을 지칭하는 다양한 색명이 등장하여 개화기의 궁중의복재료에 이용된 서양염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의대발기, 의복발기, 의대차발기, 의차발기, 주단발기, 예단폐물발기, 기타 브팀발기, 염료발기, 염색발기 등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고문서집성, 12-13.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4) 京都大學所藏韓國古文書 級紬塵關係文書 會計關契資料에는 각종 色紬의 염색재료와 염색가가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면주전 상인과 염색 수공업자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會計關契資料二 辛巳 (1881), 會計關契資料三 壬午(1882), 會計關契資料五 甲申(1884), 會計關契資料 六 甲申(1884), 會計關契資料 七 甲午(1894)이다. 자료검색일 2010. 6. 20. 자료출처 <http://db.history.go.kr>
- 5) 度支準折. 入染物種.
- 6) 『度支準折』入染物種에서는 황회목의 용도에 관해 '黃色紫的入染所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入染磨鍊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황회목을 매염제로 쓰는 염료로서 괴화와 지초를 기록하고 있다.
- 7) 林園經濟志. 展攷志, 권2, 東染.
- 8) 尚方定例. 권1, 凡例, 入染式.
- 9) 규합총서. 염식제법. 초록, 두록, 폴유청 참조.
- 10) 규합총서. 염식제법. 두록 참조.
- 11) 조경래 (2007). 규합총서에 나타난 전통염색법 해설. *파주: 한국학술정보*, p. 146.
- 12) 규합총서. 염식제법. 초록 참조.
- 13) 규합총서. 염식제법. 남, 육식, 두록, 반들, 번누, 회식(지벗), 타식(약대벗), 뵈벗, 쥬황, 침향식 참조.
- 14) 물론 유럽의 woad ball(couched woad)이나 일본의 스쿠모처럼 다른 종류의 남염료도 있으나 藍靛의 제작이 조선의 방식이었다.(김순영 (2008). 조선후기 남염법의 변천. *한국의류학회지*, 32(8), pp. 1290-1295.)
- 15) 규합총서. 염식제법. 두록, 번누, 회식(지벗), 타식(약대벗), 뵈벗, 쥬황, 침향식 참조.
- 16) 이희승 (1994). 國衣大 사전. 서울: 민중서림.
- 17) 諸橋轍次 (1985).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 18) 日本色彩研究所 편 (1954). 色名大辭典. 東京: 創元社, p. 91.
- 19) 度支準折. 彩色. "洋綠一兩價錢八錢 洋青一兩價錢八錢(彩色所用) 一兩價錢七兩(入染所用)"
- 20) 곽동해 (2002). 한국의 단청. 서울: 학연문화사, p. 234.
- 21) 덩유(1897)염료불기. "연분홍 오갑 칠십오냥, 진분홍 이갑 이십팔냥, 양청 이갑 오십이냥, 보라 이갑 십일냥, 취월 일갑 십오냥"
- 22) Soviet Union Ministerstvo finansov (1900). *Opisanie Korei*. 김병린 역 (1983).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서울: 유풍출판사, p. 184.
- 23) 『中韓大辭典』에서 洋藍을 '파리스 블루(Paris blue), 파리 청, 洋靛'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양청에 대

- 한 정의와 거의 같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中韓大辭典.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24) 『漢城周報』 제4호(1886년 2월 22일), 제6호(1886년 3월 8일), 제17호(1886년 5월 24일), 제18호(1886년 5월 31일), 제22호(1886년 6월 3일), 제23호(1886년 7월 5일)에 개재된 세창양행의 광고에 染衣, 鮮明顏料, 各色染料, 綠染料, 洋藍色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검색일 2010. 7. 20. 자료출처 <http://www.koreaa2z.com>
- 25) 합성 인디고는 1880년 A. Baeyer에 의하여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1897년이 되어서야 산업적 생산에 성공한다.(Nieto-Galan, A. (2001). *Coloring Textile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p. 196.)
- 26) Dronfield, A., & Edmonds, J. (2001). *The Transition from Natural to Synthetic Dyes*. High Eycombe: John Edmonds, p. 100.
- 27) 한국콘텐츠진흥원 & Jds infotech, Ltd. & 중앙대학교 문화컨텐츠 연구소, 기산 김준근 그림의 제작과 유통. Culture Content. 자료검색일 2009. 2. 1. 자료출처 <http://kisan.culturecontent.com>
- 28) 朝鮮國海關稅目. 輸入部, 第二 染料及顏料. 자료검색일 2009. 4. 5. 자료출처 <http://search.i1815.or.kr>
- 29) 韓國官報. 을희2년(1908년) 9월 19일, 을희3년(1909년) 11월 20일. 附錄, 告示, 第二類 染料, 顏料及媒染料. 자료검색일 2009. 4. 5. 자료출처 <http://kyujanggak.snu.ac.kr>
- 30) 林園經濟志. 晚學志, 권5, 莓藍.
- 31) 和田三造 (1931). 色名總鑑. 東京: 春秋社, p. 169.
- 32) 러시아 국립해군성문서 I. 1884년 6월 25일. 과세세율, 수입상품. “양홍(洋紅, Carmine) 종가세10. 양홍(洋紅, Cochineal) 종가세20, 염료, 유질염료(油質染料) 및 기타, 염료원료 종가세7.5” 자료검색일 2009. 4. 5. 자료출처 <http://db.history.go.kr>
- 33) Bird, Isabella L. (1898). *Korea and her neighbours*. 이인화 역 (1994). 백년 전 한국의 모든 것. 한국과 이웃나라들. 서울: 살림, p. 32.
- 34) Nieto-Galan, A. *op. cit.*, p. 196.
- 35) *ibid.*, p. 192.
- 36) 固城府叢瑣錄. 1894년 3월. “近數百人皆以洋紅洋青爲衣爲雨沾渝染見其貌樣奇怪難狀也” 자료검색일 2009. 4. 5. 자료출처 <http://db.history.go.kr>
- 37) 주 19) 참조.
- 38) 관동해. 앞의 책, p. 230.
- 39) 주 24) 참조.
- 40) 임오(1882)정월 천만세 동궁마마 관례의터불기. 임진 (1892)칠월이십일 의회군관례시 의복호아 보니오신불기, 임오(1882)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삼간탁시)빈궁 마누라의터불기, 삼간탁의터불기, 王午(1882)二月千萬世東宮媽嬪嘉禮時 衣櫛件記, 王午(1882)千嘉萬歲東宮媽嬪嘉禮時 龍胸背枕佩物件記, 임오(1882)천만세동궁마마수월팔일 의터불기, 임오(1882)삼월십팔일 거동 시 의터불기 등.
- 41) 신수(1881)오월 나각순 브팀불기, 임오(1882)황령 오
- 경연 브팀불기 등.
- 42) 임오(1882)정월 천만세 동궁마마 관례의터불기, 임오 (1882)천만세 동궁마마가례시 빈궁마누라의터불기, 王午(1882)二月千萬世東宮媽嬪嘉禮時 衣櫛件記, 임오 (1882)삼월십팔일 거동시 의터불기 등.
- 43) Dronfield, A., & Edmonds, J. *op. cit.*, Silk dyed with Malachite Green.
- 44) 최학영 신수(1881)동횡 브팀불기, 주단불기, 別付上納件記 廉辰(1880)十二月二十日 第二次, 신수(1881)팔월 니익순 브팀불기, 과록(1889)자월 최석영 별부불기 등.
- 45) Nieto-Galan, A. *op. cit.*, p. 196.
- 46) 주 21) 참조.
- 47) 萬機要覽. 財用編, 5, 有分各塵, 樺皮塵. “賣各樣彩色等物” 자료검색일 2010. 6. 20. 자료출처 <http://db.itkc.or.kr>
- 48) 度支準折. 彩色 樺皮塵. “洋綠 洋青 唐朱紅 倭朱紅 唐荷葉 二青 三青 回回青 大青 深重青 大綠 唐黃丹 唐粉 片臘脂 深黃 石紫黃 同黃 石綠 唐同碌 綠礬 三綠 常黃丹 青花 真紛紅”
- 49) 承政院日記. 고종 1년 5월 1일.
- 50) 변광석 (2001). 조선후기 시진상인 연구. 서울: 혜안, p. 39.
- 51) 위의 책, p. 36.
- 52) 備邊司賸錄. 정조 20년 11월 30일, 순조 3년 2월 12일, 순조 4년 4월 1일, 순조 7년 1월 23일, 순조 9년 3월 14일, 순조 10년 1월 10일, 순조 11년 3월 19일, 순조 12년 2월 15일, 순조 13년 1월 28일, 순조 14년 1월 22일, 순조 16년 4월 8일, 순조 18년 1월 25일 등.
- 53) 備邊司賸錄. 칠종 14년 1월 15일. “樺皮塵市民等以爲, 矣塵所屬物種之自藥局亂賣者, 一一收稅. 俾爲供役事也, 無論某稅. 稅名新創, 則弊又隨生, 置之”
- 54) 변광석. 앞의 책, p. 36.
- 55) 高宗實錄. 고종 30년 12월 28일.
- 5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서울상공업사.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 406.
- 57) 高宗實錄. 고종 11년 5월 5일. “教曰 近日洋青洋紅 既係洋貨 且色甚不正 嚴禁可也”
- 58) 주 48) 참조.
- 59) 고동환 (2008). 개항전후기 시진상업의 변화-면주전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p. 125.
- 60) Soviet Union Ministerstvo finansov 저. 김병린 역. 앞의 책, p. 178.
- 61) 위의 책, p. 181.
- 62) 農商務省 (1906).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京畿道, 忠淸道, 江原道, p. 569.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慶尙道, 全羅道, p. 474.
- 63) 大韓每日申報. 1909년 10월 19일 雜報. 皇城新聞. 1910년 6월 24일 雜報.
- 64) 송규진 (2003). 개항기 조선과 서양의 경제교류. 민족문화논총, 28, pp. 330-331.
- 6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 403-404.
- 66) Soviet Union Ministerstvo finansov 저. 김병린 역. 앞의 책, pp. 197-198.
- 67) 이현장 (2000). 1882~1910년간 서울시장의 변동.(이

- 태진 외 (2000). 서울상업사. 서울: 태학사, p. 384.)
- 68) 萬歲報. 1906년 11월 6일 雜報.
- 6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 402-403.
- 70)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12월 27일, 清津港 通過 貿易
 상황, 9·10월 通過重要品價額. 자료검색일 2009. 4. 5.
 자료출처 <http://db.history.go.kr>
- 71) 주 24) 참조.
- 72) Soviet Union Ministerstvo finansov 저. 김병린 역. 앞
 의 책, p. 262.
- 73) Foreign Office and The Board of Trade (1915).
 Corea, Report for the years 1914 on the trade of
 Corea. London: Harrison and Sons. 자료검색일
 2009. 4. 5. 자료출처 <http://db.history.go.kr>
- 74) 한국콘텐츠진흥원 & Jds infotech, Ltd. & 중앙대학
 교 문화컨텐츠 연구소. 기산 품속도 디지털 화첩.
 Culture Content. 자료검색일 2009. 2. 1. 자료출처
<http://kisan.culturecontent.com>
- 75) 度支準折. 入染磨鍊.
- 76) Bourdare, Émile (1904). En Corée. 정진국 역 (2009).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파주: 글향아리, pp. 142-143.
- 77) 漢京識略. 2. 市塵, “又染靛局 則諸處有之 門外壁上 以
 靛花搗掌爲表”
- 78) 各道各郡訴狀. 常衣司 染藍匠 曹奉完 白活, “右謹所求
 事實은 訓練院 大廳後田을 本是 本司所關而矣身 以染
 藍舉行으로 多年耕作は 白加尼 崔熙貞爲名人이 敢生不
 良之心哉이 稱以農圃所關하고 渠之姓名을 錄呈於內藏
 院 云々고 勒奪耕作이오니 世豈有如許不測之心乎...”.
 자료검색일 2010. 7. 31. 자료출처 <http://kyujanggak.snu.ac.kr>
- 79) 김영호 (1974).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
 영형태. 대동문화연구, p. 175.
- 80) 度支準折. 匹綾綾絹絹, 紬紵木布綿, 各色絲繭, 入染磨
 鍊, 皮物.
- 81)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
- 82) 高宗實錄. 고종 31년 7월 22일, “尙衣院掌供御衣櫥 濟
 用竝”
- 83) 萬機要覽. 戶曹貢物, 別貿一年貢價, 正宗戊戌年 乙巳年
 戊午年 丁卯年 各司有元貢別貿 各司無元貢別貿. 度支
 準折. 入染物種.
- 84) 度支準折. 入染磨鍊.
- 85) 度支準折. 入染磨鍊. “紅絹, 紅紬, 表裏紅綿布, 進獻紅
 苧布 紅花十斤計取七尺甲俗一件”
- 86) 度支準折. 入染磨鍊.
- 87) 萬機要覽. 戶曹貢物, 別貿一年貢價, 正宗戊戌年 乙巳年
 戊午年 丁卯年 各塵契別貿, 染契.
- 88) 備邊司牘錄. 현종 14년 1월 20일, 철종 1년 2월 12일,
 철종 5년 4월 2일.
- 89) 度支準折. 匹綾綾絹絹, 紬紵木布綿, 各色絲繭.
- 90) 京都大學所藏韓國古文書 締紬塵關係文書. 會計關契資
 料 二 辛巳(1881), 會計關契資料 三 壬午(1882), 會計
 關契資料 五 甲申(1884), 會計關契資料 六 甲申
(1884), 會計關契資料 七 甲午(1894). 자료검색일
 2010. 7. 20. 자료출처 <http://db.history.go.kr>
- 91) 변광석. 앞의 책, p. 125.
- 92) 고동환. 앞의 논문, p. 135-136.
- 93) 주 90) 참조.
- 94) 변광석. 앞의 책, p. 109.
- 95) 京都大學所藏韓國古文書 締紬塵關係文書. 會計關契資
 料 二 辛巳(1881). “大紅水紬 貳拾捌疋伍尺柒寸內 減
 売疋式貳疋除, 紫的吐紬 拾陸疋肆拾柒尺肆寸伍分內
 減壹疋除”, 會計關契資料 三 壬午(1882). “藍水紬 貳
 拾壹疋拾柒尺伍寸壹分肆里內 減壹疋式貳疋除, 草綠吐
 紬 拾陸疋拾玖尺內 減壹疋除”
- 96) 度支準折. 儀仗軍改染服色.
- 9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424-425.
- 98) 위의 책, p. 425.
- 99) 皇城新聞. 1900년 7월 14일 雜報.
- 100) 大韓每日申報. 1906년 3월 13일 雜報.
- 101) 주 63) 참조.
- 102) 이한구 (1993). 염직계의 시조, 김덕창 연구-동양염
 직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경영사학, 8, p. 235.
- 103) 大韓每日申報. 1910년 7월 7일 雜報.
- 104) 皇城新聞. 1909년 3월 20일 雜報.
- 10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404.
- 106) 위의 책, p. 430.
- 107) 朝鮮工場名簿. 1932년. 中村資良 (1921). 朝鮮銀行會
 社要錄 東洋經濟新報社, p. 56. 자료검색일 2009. 4.
 5. 자료출처 <http://db.history.go.kr>